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緣起이다

도법 스님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네 번째 법주사로 나온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선결사추진본부장)은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을 주제로 법석을 열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와 사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은 '생명평화경'에 있다고 주장하며 생명평화경의 요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종교, 이념, 지역, 국가개도를 넘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범종교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세계관과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생명평화경은 불교경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성서, 동양철학, 불교의 정신, 현대과학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불교이야기가 되고 성서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성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자기 중심, 승단 중심의 이기성, 불교라는 집단중심의 이기성에 빠지게 돼 현실적인 한계와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과 한국 대승불교의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대승불교 훼손 심각한 문제

성철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를 슬로건으로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활동을 했다. 성철 스님이 말한 '부처님 법대로'와 내가 파악한 '부처님 법대로'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 차이점을 다른 관점에서 짚어보면 초기불교, 대승불교의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초기불교도 부처님 법대로 살기위해 생긴 불교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부작용과 한계가 나타나 다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하면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초기불교도 대승불교도 모두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한 가르침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대승불교가 탄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는 한마디로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불교였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의 불교는 개인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부처님과 초기불교 수행자의 차이점이다.

출가 수행자들이 여러 활동과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 승단 중심의 이기성, 불교라는 집단중심의 이기성에 빠지게 돼 현실적으로 한계와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불교 수행자들도 방향과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불교를 실행하는 재가자들도 몸살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불교와 수행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줄고 불신이 생겼다.

그런데 오늘 한국불교의 현실로 돌아가보면 역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불교에서는 출가자 집단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철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 법대로'는 매우 중국불교적이다. 은둔적이고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적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대승불교가 겪고 있는 모순, 혼란, 부작용과 폐단이 나타나다 보니까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못쓰는 것, 심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와는 다른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승불교의 미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험요소들이 많다.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과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내놓은 것이 생명평화경이다.

생명평화경은 불교경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성서, 동양철학, 불교의 정신, 현대과학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불교이야기가 되고 성서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성서가 된다. 종교, 이념, 지역, 국가개도를 넘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범종교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세계관과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다.

돌이켜 보면 문명사는 온통 인간의 생존과 자족의 한계를 넘어 이기적 소유욕을 쫓는 분리, 분열, 대립, 투쟁의 세월이었다. 자아, 가족, 민족, 국가, 종교, 이념의 관점에서 편을 나누어 자유, 정의, 평화의 이름으로 상대의 생명을 죽이고 평화를 파괴하며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대문명의 실상이다.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 하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지식(말, 관념)에 빠져 구체적 사실과 진실인 실상의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삶을 다루어 왔던 것이다. 자기 색안경의 소견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다. 도구로 사용해야 할 생각과 언어와 지식에 매몰돼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왜곡과 갈등과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작심하고 중도, 실사구시, 과학적 태도와 방법으로 삶을, 생각과 지식과 언어를 다루어야 마땅하다.

다른 하나는 문제의 근저에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않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릇된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보편적 진리의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않은 이원론, 실체론의 세계관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현대인 대다수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상태에서 다음 단추를 계속 꿴듯이 어느 한 측면과 부분을 절대화시키거나 왜곡시킨 그릇된 실체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벽을 넘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의 세계관이 필요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의 실상에 일치되는 보편적인 모든 세계관을 함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생명평화경이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이 (화엄경)이다.

화엄 사상가들은 화엄의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제량중중무진연기법"이라고 했다. 온통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법을 살하고 있을 뿐 연기법이 아닌 내용이 없다는 말이다. "중중무진연기법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는 본래 그물의 그물코처럼 불일부의 생명 공동체이다.



도법 스님은... 한국 실천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제주 출생. 1965년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했다. 1990년 젊은 스님들의 수행단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했다. 1995년 남원 실상사 주지 소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농촌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해 실상사를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1998년 조계종 중대분규 때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분규를 정리했다. 이런 왕성한 활동으로 도법 스님은 2000년 대성철·서용·원호 스님에 이어 존경받는 스님에 꼽히기도 했다. 금산사 부주지, 실상사 주지 등을 거쳐 불교교과학교장, 지리산생명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조계종 화쟁위원장 등 여러 직함을 갖고 있다.

목 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물 마시고

되살아난 것보다 더한 기적이나

생명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일 없다

전도몽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

실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중중무진연기의 세계관을 대승불교 수행론과 연결시켜 보겠다. 대승불교인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갖고 논란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구보리는 눈으로 존재의 실상인 인드라망 세계관과 철학을 확립하는 일이고, 하화중생은 손발로 인드라망 세계관과 철학을 전신전력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때문에 존재의 실상, 즉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정체성에 충실하게 실천하면 자리아타가 동시에 실현된다.

지금 여기 나는 자연, 이웃, 부모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존재한다. 온통 대상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상대들은 나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이 실상의 내용대로 낮추고 비우고 나누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자타가 함께 화목하고 평화로워진다. 자리아타가 동시에 실현된다.

여기 목말라 죽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마셨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지 않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 그보다 더한 신비의 기적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더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 기적, 신비다. 구체적 실상이 그러하듯 우리들은 일상의 신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진상을 본다. 미래를 예언한다. 물 위를 걷는다 등 이상한 것을 해야 불가사의하다. 기적이다, 신비하다고 한다. 평범한 일상에서 불가사의한 기적이, 거룩한 기적이 늘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고 특별한 것만 가치를 부여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소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생명평화(인드라망) 무늬 이야기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사회,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등 원초적 물음을 안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 물음을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한다. 지금 여기 내 삶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이해가 왜 그렇게 절실하고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삶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올바른 방향과 길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화두를 잘 붙잡고 살아야만 어떤 삶을 살 수도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자리아타, 즉 자기완성

과 사회완성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며 또한 행복 한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인생의 화두를 놓고 살면 아무리 심산유곡에 들어가 도를 닦아도 또 다른 모순과 혼란에 빠져 헤매게 되는 헛수고의 인생,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서 지금 바로 붙잡고 가야 할 인생의 화두인 지금 여기 내 삶의 실상에 대해 따져봐야 마땅하다.

인드라망무늬는 화염의 연기적 세계관과 정신을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그림이다. 무늬의 제일 아래쪽이 지금 여기 나(인간)이다.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왼쪽이 날짐승과 물짐승이다.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이고, 붉은 원형은 해 하얀 원형은 달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관념에 몰들기 이전의 본래 청정한 무위자연의 우주 삼라만상과 인위적 관념에 몰든 이후의 인간 사회가 그물의 그물코처럼 불일부의 총체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단순화시켜 표현했다.

지금 지구촌에는 꿀벌들이 사라져간다고 한다. 꿀을 따러 나간 벌들이 전차파로 인해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지구촌에서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4년 안에 대재앙이 인류 사회에 덮쳐 온다고 한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사과, 포도, 쌀 등의 먹거리가 생산될 수 없다. 먹거리가 없는 인류의 삶이란 고통과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더 많이 더 편리한 꿀을 따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그릇된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 때문이다. 사람으로 인해 꿀벌이 사라지고 꿀벌이 사라짐으로써 인류의 운명도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 꿀벌과 내 생명의 관계처럼 모든 상대들과 내 생명이 불일부이적 관계로 이루어진 모습의 실상을 시각화한 것이 생명평화무늬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본래부터 분리 독립해서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상호의존성과 변화성의 진리에 의해 도전의 양면처럼 서로 의지하고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나와 사회, 세계의 실상이다. 마치 그물의 그물코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이 살고 싶은 평화는 어떤 것일까. 불일부의 동반자이므로 나와 나, 이웃과 이웃, 인간과 자연이 존재의 법칙인 모심과 섬김의 질서에 따라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평화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생명평화무늬는 지금 여기 나, 사회, 세계의 실상과 생명의 염원인 평화로운 삶, 사회 즉 자리아타의 길인 자기완성, 사회완성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평화무늬의 세계관과 철학에 근거한 구체적 실천수행으로 '생명평화 배대서원 절명상'을 만들었다. 생명평화 배대서원 절명상은 지금 여기 현장에서 자리아타 즉 자기완성, 사회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평화수행론이다. 잘 듣고 음미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엔진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편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탐과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성적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꽃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묘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외를 만들었습니다.

▶꽃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고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